

말

정확한 말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짧게, 후려치는 한 마디로 할 수 있는 것을 줄줄이 늘이고 늘려 쓰는 것은 좋지 않다. 한 마디 말이면 충분한 것을, 여러 말의 덧칠을 하여 상 위에 올려놓는 일은 그야말로 재미없다. 그러나 길게 글 쓰는 행위가 갖는 흥미로운 점이 없지 않다. 첫째 글을 쓰면서 글쓰기의 대상으로 삼았던 상대가 성장하고 변화하고 승화한다는 점이 그렇다. 까만 점 하나를 표시하는 것으로 끝맺음 하기까지 선택과 결정의 프로세스를 경험하는 것은 의미있다. 인쇄물에 올라가 앉은 까만 온점을 단숨에 살펴보는 인상과 오랫동안 섬세하게 따져보는 만드는 자의 눈이 보내는 시간은 경험의 깊이 자체가 다르다. 글쓰는 과정을 빗대어 박선민 작가가 평소 주변을 관찰하며 시간을 보내고 작업을 하기 위해 여기저기 이 동선 저 동선을 연결하며 길을 걷는 상상을 해본다. 박선민의 작업 <시(詩)>(2000-2014)에 자리하고 있던 이미지와 텍스트의 발췌 과정은 그가 10년간 아트 디렉터로 활동한 독립예술잡지 <versus>로 연결되고, “찰나적 환영”(작가의 단어)에 관한 <daystar 1-4>(2011-)를 보던 눈은 영상 작품 <근시정글>(2015)로 이동한다. <시(詩)> 작업으로 독일의 신문 지면을 입체적인 이미지적 시로 치환시켰던 작가는 잡지 <versus>의 지면 위에 자신의 사진 작업을 배치함으로써 이미지가 힘을 갖고 빼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실험해왔다. <daystar> 시리즈에서 하늘거리듯 일상의 망중환을 조형적으로 포착한 듯 보였던 시각성은 <근시정글>에서는 식물적 자연에 깃든 원시성과 동물적인 활력과 긴장감을 만들어 낸다.

조나단 크래리가 [관찰자의 기술]에서 시대마다 고안된 ‘보는 장치’들에 따라 작가와 관찰자의 보는 시야와 감각이 변화한다는 성찰을 떠올려본다면, 우리는 박선민이 보고 있는 대상이 계속 끝없이 흔들리고 시야에서 특별히 가깝게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과도한 흔들림이 아니라 빛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변적 상태를 유지하는 사물은 고체가 아니라 유동적인 성질변화를 포함하는 화학적 성질을 지닌 지구의 구성 요체다. 가벼움과 무거움 또한 박선민이 흘뿌려놓은 작업의 자장 안에서 별자리를 구성한다. 박선민의 개별 작업은 하나의 완결체이기도 하지만 작품 바깥으로 이동해 나와 다른 작업들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바깥을 향해 있다. 박선민 작가의 작업이 전시된 공간과 환경을 조율하는 방식 또한 유기적인 면모가 강조되는데 작업 속에 등장하는 자연의 이미지, 물과 나뭇잎, 그림자와 별과 같은 자연의 요소들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유연하게 존재한다. 세상의 부분 부분을 터치하지만 각각의 세밀한 뉘앙스를 건드려 변조하지 않는다. 작가가 세상에 보내는 관심사와 조형적 형태는 서로 가까운 듯 멀리 있는 듯 연동된다.

또 하나. 짧게 단칼로 잘라쓰지 않고 길게 또 길게 글을 쓰는 행위의 매력은 글을 쓰면서 대상에 대해 오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확보한다는 것은 왜 중요할까?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궁금한 것들의 실체들과 함께 있을 자리를 갖기 위해서 필요하다. 박선민이 작업을 하며 보낸 순간들을 나는 ‘작은 여행’이라고 부르고 싶다. 일상에서 날마다 생활에 스며드는 빛의 습기와 온도를 촉촉하게 보관하여 실험 도구들 위에 올려놓고, 예리한 칼과 핀셋을 갖고 있지만 그것들로 과도

한 수술을 시키지 않는 인문학적인 수술대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다시 이런 끝없이 이어볼 수 있는 은유와 혹은 담론을 빌린 정확해 보이는 말들을 모아 한 자리에 붙박이마냥 놓고 싶지는 않다. 작가 박선민이 작업을 통해 전하듯 그의 작업 안에 살고 있는 ‘시’와 ‘별’이나 별, ‘물결’과 ‘녹색 나뭇잎의 흔들림’이 매순간 다르게 현실과 조응하고 상대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나는 그가 세상에서 잡고 다시 배치하는 말과 그 방식에 대해 떠올려본다. 육면체의 별과 같은 형상이나, 구름이 살랑이는 햇살이라든가, 자연에 있는 이끼를 자세히 보는 “찰나”는 현실에서는 소리 나지 않는 묵음의 상태이자 주된 요소의 배경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언제나 있는 것들로서의 자연과 삶은 일종의 ‘대기’와 같아서 손에 획 잡히는 상투어들을 만들어내기를 거부한다. 박선민은 여기서 눈앞에 존재하는 인공과 자연과 사물과 흘러가는 시공간의 ‘뉘앙스’들로 형태를 짓는다. 그가 만든 형태들은 리듬을 따라 향해하는데 그것은 내가 지켜본 바, 언제나 작업의 재료(나뭇가지부터 일상의 사물들)를 현실 속에서 찾고 있으며 순간들을 눈으로 손으로 수집한다.

내가 박선민의 작업을 보며 찾고자 하는 말은 (작가의 작업이) 어떤 자리를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작업을 보는 눈들이) 계속 움직이고 새롭게 주변을 바라보기 위해 필요한 말이다. 박선민이 가시적/ 비가시적으로 존재하는 환경과 사물, 대상들의 별어진 격차와 유사함을 ‘조율’하는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과연 어떤 말들일까?

먼저 나는 박선민의 말을 유려하게 ‘조형화’하지 않는 원칙주의자의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박선민이 독일의 신문과 한국의 신문에서 문장과 사진(이미지)을 발췌하여 만들었던 <시(詩)>(2000-20014)에서 엿볼 수 있듯이 말들을 한땀 한땀, 또는 한 구슬 한 구슬 또르르 스스로 굴러가게 해보려는 자율성의 타진이다. 말들이 맥락에서 흘러나와서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여기서 말은 한 사람이 세상의 전보를 돌려받는 방식이자, 세계가 간신히 이 시스템을 유지해나가는 (가련하거나 뭉쓸) 방식이기도 하다. 과연 이 말들로부터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시(詩)>의 작업은 여기저기 과도한 의미와 덧칠이 올라간 칼라풀한 말들을 떨어내고, 말들의 근본적인 뼈대가 무엇인지, 말들이 어떻게 세계를 향해 소리내고 어떤 데시벨로 말하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뜯어보는 것들이다. 신문 헤드라인의 말들을 편집함으로써 작가는 “말의 샐러드”(초현실주의자들의 표현)를 ‘문화 배우기’의 수단이자 ‘사회 경험하기’의 차원으로 전환시킨다. 독일 신문이 갖고 있는 말의 속도, 이미지와 현실과의 관계를 새로운 “맥락 만들기”로 사용한 방식은 작가의 다른 작업에서도 볼 수 있는 서로 다른 것들의 ‘관계성 실험’과 ‘관찰’로 이어진다.

나는 한편 박선민의 말이 법칙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박선민의 말이라고 칭한 것은 음성과 문자 언어를 활용한 말 그대로의 말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비약하고 청각적 사운드와 공간에 설치되는 작가의 총체적인 감각을 동시에 예민하게 만드는, 만들기의 어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고집스럽게 한 대상을 오래 관찰한 자가, 그 대상의 법칙을 적나라하게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덜 설명하려고 하는. 대상 자체가 자신의 법칙을 세워볼 수 있는 법칙과 관련한 말이라고 본다. 1999년부터 시작된 작업 <암호>(1999-2013)는 생물학을 전공하기도 한 작가가 식물의 도감이자 백과사전의 한 단서들을 실제 사용가능한 언어로 ‘비약’시킨 것인데, 이 비약은 농담이나 장난에서 머물지 않는다. 이 코드들은 실제

로 사람이 사용하는 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실제, 이 암호에 따라 내용을 만들어 작가에게 ‘편지’를 전한 이도 있었다. 작가의 작업은 논리적이며, 논리이지만 비약과 다른 것들끼리의 대비를 허용한다. 법칙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자는 양념을 치려 하지 않고 이미 있는 요소들의 변별력을 기르고자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별의 육각형이 왜 그런지, 떨어지는 물방울이 왜 그런지, 박선민이 사진 촬영하고 있는 특정 지역의 나무들의 생김새는 풍토와 바람에 따라 어떤 모양을 구현해내는지 살살이 뒤지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 살펴보려 하는 직무를 어느 정도 유기한 인류학자의 태도다.

눈, 에디터로서의 작가

글을 쓰는 것에서 ‘과정’이 갖는 힘을, 또 박선민이 하는 말의 방법에 관하여 지금 이 지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까닭은 박선민의 작업을 나는 근래에 오랫동안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아트 디렉터로 지면을 편집한 박선민이 여러 말이 필요없는, 필요하가디보다는 불가한 ‘VS’(‘인공 vs 자연, 단수 vs 복수, 장님 vs 귀머거리, 결정 vs 결정 등의 주제)의 태도로 사진들을 과감하게 배치하였음에도 주변과의 조율과 조화가 획득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했다. 말이 붙어있지 않은, 작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사건을 다룬다거나 역사적 또는 현재 생성되는 담론을 조형 언어로 다루고 있지 않는 상태임을 우리는 작업을 보며 알 수 있으나, 그럼에도 말의 어법에 대해 조용하다는 점은 흥미롭다. 보면서 흥미로웠던 점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보았다는 점도 있겠지만) 여러 작업들이 야심찬 ‘프로젝트’나 ‘전시별 기획’보다는 생활에서 계속하여 발견되고 오랜 시간(연도가 주로 ~로 표기) 지속되는 시간의 과정으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식물과 풍토/땅에 관한 작가의 탐사(제주도 등)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나 기본적인 추상 도형인 원, 삼각형, 선, 육각형 등의 조형적 관심사가 해, 달, 별의 자연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연동되는 점은 그가 관심사를 포획하기보다는 계속(식물에 물을 주듯) 기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2011년 여름 국립극단 마당에서도 보았고, 갤러리 팩토리 근처 카페에서 잡지 [Versus]를 열어 훑히면서도 보았고 여러 번 실물로 보기도 했다. 2013년 여름 장마철에 주한 독일문화원([이미지의 침묵] 전)에서 보았던 식물, 녹색, 흩어진 조각들이 독일어를 배우는 공간 전체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몹시 흥미로웠다. 장마였기 때문에 내리는 빗소리와도 같이 있기에 적합한 작업이었다. 2017년 9월 10월인 근래에는 박선민 작가의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았는데, 그때 함께 하게 되었던 것은 특히나 영상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소리였다. 눈여겨보고 싶은 점은 박선민의 작업을 눈으로 보지 않고(모니터에서 다른 일을 하며), 소리만 들었을 때 이 소리는 집중보다는 ‘방기’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배경처럼 소리는 존재하며, 이 미니멀한 듯한 사운드는 일상에서 몸을 부대끼며 겪는, 매순간 사람/자연/사물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소음같은 것이다. 영상 작업 <salt line drawing>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매미가 울리는 소리에 차 바퀴가 굴러가고 바람 소리가 들린다. 2011년의 영상 작업 <daystar1>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인간이나 사물, 기계와 같은 인공이 만들어낸 소리인지 나무나 바람, 돌이 만들어내는 자연의 소리인지 구분이 명확하게 나지 않는다. 2014년의 창덕궁 후원 호수 위에서 행했던 작업들의 기록에서 들리는 소리는 어떤가? <사라지고 이어지는 법칙들>(2014)은 작은 사물들을 근접촬영해

확대해 보여주고, 나무숲과 호수는 원거리에서 촬영된다. 마치 한 이야기의 서막에서 풍경이 소개되거나 결말 부분에 홀연히 사라질 때와 같은 인상이다. 이 위에 숲의 새소리, 바람소리 사이로 병원의 초음파 기계가 내는 것 같은 인공음이 교차되고 공존한다.

작가의 작업을 보며 가깝고 멀리 보이는 것의 차이에 대해 다룬다는 말로 글을 시작해야 겠다고 처음에는 생각했다. 가깝게 보이는 것과 멀리 보이는 것을 조형적으로 대비시키는 * <근시정글>이라 이름붙은 작업에서도, 최근의 영상 작업인 <고속도로 기하학 2>(2015)을 보면서도 시선이 움직이는 차 안에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에 잡힐 것 같은, 얼굴에 바람이 닿는 듯한) 촉각적 환영을 다루고 있다고 보았다. 박선민 작가가 말하는 ‘눈’에 관한 점은 내게 지금은 ‘그림자’로 읽힌다. 초기 작업부터 작가의 작업에 등장하는 식물의 조형성이 몹시 독자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 식물이 생태적이라든가 자연이라든가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인간 세계에 아무런 유용성 없이고 그저 그 존재만으로 의미있는 개체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식물의 조형성은 눈 앞에 '증명사진'(그림자 없음)처럼 존재하는 윤곽선을 따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햇볕이 비치고, 창문이나 흰 천 등 윈도우(중간 매체)를 통해 생겨난 ‘그림자’의 형상에서 존재감을 더욱 획득하는 것이라고 감각할 수 있다. 영상 작품 <daystar4>에서, <고속도로 기하학> 등 박선민의 작업에서 자연과 사물이 하는 일이 많다. 그것은 앞으로 나가기만 하지 않는, 부분 부분 흩어지고 뒤돌아보고 움직이는 작업의 속도를 만들어내며 또 작업 안에서 추상적 요소들을 분산 배치하는 작가의 기하학적 관심을 책임진다. 작가는 인간이라는 사회적 동물이 가진 두 눈이 자연을 가깝게 또 멀리 바라보는 시각성을 탐구한다.

박선민 작가에 대해 말하고 적는 일은, 말을 적게 하기 위해 출발하지만 더 많은 말을 흥미롭게 필요로 하는 ‘VS’(내가 한국어로 읽고 말해보기에는-) 역전의 상태라는 표현이 지금은 적절해 보이는)에 도달한다. 그는 말을 이미지를 사용하여 결국에는 해내며, 설명이 아닌 다르게 말하려는 충동으로 세상의 다른 부분을 밝혀낸다.

-현시원(시청각 공동 디렉터)